

# KIA 유승철 “호주 리그에서 실력 증명하겠다”



일본에서 방향성을 잡은 유승철이 칼을 갈기 위해 호주로 떠났다.

KIA 타이거즈의 우완 강속구 투수 유승철이 캔버라 캠프에 합류했다.

유승철은 오는 1월 21일까지 이어지는 호주 리그에서 실전을 소화하면서 2024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방향성’ 고민을 끝낸 유승철이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무대다.

순천 효천고를 졸업하고 2017년 KIA의 1차 지명 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유승철은 150km가 넘는 목격한 직구로 눈길을 끈 기대주였다.

강렬한 공에 비해 결과는 좋지 못했다. 2019년에는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시즌이 끝난 뒤 현역으로 입대했다. 전역 후 지난 시즌에는 선발 경쟁도 펼쳤지만 21경기에 나와 19이닝을 던진 게 전부였다.

올 시즌에는 광배근 부상도 당하면서 4월 15일 키움전이 시즌 1군 첫 등판이자 마지막 등판이 됐다.

‘결과’로는 아쉬운 시즌이지만 야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과정’에서는 성공적인 시즌이다.

유승철은 “솔직히 많이 아쉽다. 광배가 찢어져서 재활에 오래 있었다. 이상화 코치님이 힘들 때 많이 잡아주셨다. 관심도 많이 주시고, 코치님과 하다 보니 긍정적으로 됐다”며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언젠가 또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걸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한 해인 것 같다. 실망감은 크지만 중요한 걸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 유승철에게 시즌이 끝난 뒤 참가한 교육리그가 많은 도움이 됐다.

유승철은 “걱정은 많은데 마운드에서는 생각이

오키나와 캠프서 투구폼 교정 방향성 잡고 투구 리듬 찾아 긍정 이미지로 확신 주고 싶어

없었다. 마운드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심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호흡도 잘 안됐다. 물입을 안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상황 생각 안 하고 구위, 구속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걸 인지하고 나서 생각을 하려고 했다”며 “교육리그 하면서 좋았다. 좋았지만 기술적으로 하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은 자신의 장점인 구위·구속에 집중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정재훈-이동걸 코치와 함께 한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유승철은 실마리를 찾았다.

유승철은 “22년 초반에 구석이 빨라지니까 욕심도 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보여줘야 할 장점은 구석이니까 구속을 내기 위해 노력 많이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다. 세계 던지고 싶으니까 몸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왼쪽 팔을 꼬집어내서 던지게 됐다. 한번 습관이 되니까 경기는 해야 하고, 알면서도 고칠 수 없었다”며 “캠프에서 코치님들이 알려준 기술이 있다. 투구폼을 크게 바꾸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교정을 했다. 정재훈 코치님이 내가 던지는 영상을 다 보시고 방향성을 잡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다. 요령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 요령에 집중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가 신기하게 공이 원하는 방향에 들어갔다. 투구 리듬을 찾아주셨다”

고 말했다.

또 “구위도 잃지 않고, 제구도 더 잘 잡힌다. 우타자 직구를 못 던졌다. 오른손 투수가 가장 스트라이크 던지기 좋은 코스인데 그게 안 돼서 힘들었다. 그게 되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해졌다. 물론 새로 바뀐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습관이 생길 것이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빨리 캐치해서 유지하는 게 목표다”고 덧붙였다.

“투수라는 포지션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 시즌.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극장’을 더한 유승철은 마무리캠프에서 찾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유승철은 “확신이 없었다. 내가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좋다고 하니가 정제됐다. 예전에는 직구 자신감도 있었고, 몸 컨디션이 좋으니까 공이 좋았던 것이다. 지금은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느냐가 다르다. 생각과 기술이 같이 가니까 좋다”며 “정재훈 코치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초구에 불이 났을 때 2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 잡아야 한다’였다. 초구 불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음 공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던지면 들어간다. 그게 제구인 것 같다. 내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 내 것이 만들어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호주리그는 그래서 유승철에게 좋은 기회다.

유승철은 “마운드에서 증명할 때가 됐다. 제구가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확신을 드리고 싶다. 마무리캠프에서 준비한 걸 호주에서 확인하고, 증명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승철

## 강성훈·노승열·함정우, 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출전

168명 출전 파이널 스테이지 상위 5위까지 2024시즌 자격

강성훈과 노승열, 함정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파이널 스테이지에 출전한다.

2024시즌 PGA 투어 출전권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는 1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컨트리클럽(파70·7054야드)과 TPC 소그래스 다이슨빌(파70·6850야드)에서 펼쳐진다.

168명이 출전해 2개의 코스에서 2개 라운드씩 소화하는 방식으로 열리며, 컷 탈락은 없다.

PGA 투어 출전권이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2012년 이후 이번이 11년 만이다.

그동안은 2부 투어인 콘페리티어 상위권자 등이 PGA 투어로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번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곧바로 PGA 투어로 가는 문은 여전히 좁다.

168명 가운데 상위 5위(공동 순위 포함)를 해야 2024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다.

이들 다음으로 상위 40명은 2부 투어인 콘페리티어 2024시즌에 나갈 수 있다.

이 40명 가운데 상위 25명은 12개 대회 출전이 보장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8개 대회 출전권을 확보한다.

이후 20명에게는 콘페리티어 조건부 시드와 3부 투어에 해당하는 PGA 투어 아메리카스 출전권을



함정우

준다.

한국 선수로는 강성훈, 노승열, 함정우가 출전한다.

강성훈은 2019년 AT&T 바이런 넬슨, 노승열은 2014년 취리히 클래식에서 PGA 투어 우승을 경험

한 선수들이지만, 최근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PGA 투어 복귀를 노린다.

함정우는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대상 수상자 자격으로 PGA 투어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연합뉴스

## 우즈, 아들 찰리와 PNC 챔피언십 우승 도전

부상에서 복귀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가 아들 찰리(14)와 함께 우승에 도전한다.

우즈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즈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PNC 챔피언십(총상금 108만5000달러)에 출전한다.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투어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은 프로선수수가 2인 1조로 출전하는 대회다.

총 20팀이 경쟁하는 대회로 메이저대회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경험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다.

36홀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자 샷을 친 뒤 더 잘 맞은 공을 골라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즈는 아들 찰리와 4년 연속 이 대회에 나선다. 2020년 7위, 2021년 준우승, 2022년 8위로 마감했다.

올해 대회는 우즈가 발목 수술을 받고 두 번째로 치르는 대회다.

우즈는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 발목 통증으로 기권한 뒤 수술을 받았고 이달 초 히어로 월드챌린지를 통해 필드에 복귀했다.

우즈는 최종 합계 이븐파 288타로 출전 선수 20명 가운데 18위로 복귀전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녹슬어 있던 것을 제거했다”고 만족해했던 우즈는 PNC 챔피언십을 두고 “골프에 대한 사랑을 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작년 우승자인 비제이 싱(피지)은 아들 카스 싱



타이거 우즈

과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아들 윌 맥키, 여자 골프 세계랭킹 5위 넬리 코다(미국)는 테니스 선수였던 아버지 페트르와 함께 출전한다.

/연합뉴스

## ‘7억달러’ 오타니 연봉은 2000만 달러 6억8천만 달러는 10년후부터 받는다

미국프로야구(MLB) 역대 최고 계약액(10년 7억달러)을 기록한 오타니 쇼헤이(29·사진)가 계약기간 받는 총액은 2000만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디에슬레틱 등은 12일 오타니의 연봉 지급 유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디에슬레틱은 “오타니는 연봉 7000만달러 가운데 6800만달러의 지급 유예에 동의했다”면서 “유예된 금액은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무이자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계약 연봉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뒤에 수령하겠다는 것으로, 오타니가 먼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저스가 경쟁 균형세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전력을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타니의 월드시리즈(WS) 우승 열망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가을 야구를 경험하지 못했다.

디에슬레틱은 “이러한 구조는 다저스의 현금 운용에 유연성을 더해준다”면서 “(덕분에) 다저스는 일본인 투수 아마모모 요시노부, 우완 타일러 글래스노우 영입 경쟁에서 상위권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오타니의 넉넉한 주머니 사정과 절세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디에슬레틱은 “오타니는 광고와 각종 사업을 통해 연간 50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최고 세율이 13.3%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을 때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달았던 등번호 17번을 그대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AP통신은 “기존에 17번을 쓰던 조 켈리가 99번으로 등록됐다”는 현재는 아무 번호도 배정돼있지 않다. 등번호를 바꾸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을 때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달았던 등번호 17번을 그대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AP통신은 “기존에 17번을 쓰던 조 켈리가 99번으로 등록됐다”는 현재는 아무 번호도 배정돼있지 않다. 등번호를 바꾸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